

교육 연합 신문에 바란다

신문에 교육이 더해진다니, 첫 단락부터 기대감보다 우려를 더 표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목적이 내포된 많은 신문은 대부분 자신들이 하는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드는 광고용 문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는 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세 번째 신문의 대상이다. 이 점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맞아 예비 독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접수됐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게재하도록 한다.

본지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 를 드린다.

<편집국>

따뜻한 이야기 가득 담긴 신문이 되길...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연합신문은 전국의 교육청이나 각 지방청 교직원들 학교, 학원선생님들이 보는 신문이니 만큼 공교육, 사교육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것 이라고 봅니다.

한 비난뿐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선 연신 사과를 드리고 통화를 끝내신 후 담임선생님께서 임신 중에도 힘들게 학교에 나와서 너희를 위해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니까... 학교에 가서 잘해드리라고 하시고 착잡한 얼굴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게자와 교사 분들이 보시는 교육연합신문에서 학생들과 교사분들의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경험 많은 교사분들의 조언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이관명을 아시나요?

그는 조선 속종 때의 암행어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관명이 잔국을 들고 민심을 살피던 후 속종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이제껏 전하를 방치한 대신들 사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관명이 잔국을 들고 민심을 살피던 후 속종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첨단 시대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도덕과 인간성을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탕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며 바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송학초등학교(교장 송경수)에서는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생활' 강좌를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요일마다 매주 1회 운영하고 있다.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감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간을 축하합니다! - 채희문(2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많은 신문들이 새롭게 창간하고 있는 이 때에 또다른 신문이 창간한다는 것이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기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신문들이 새롭게 창간하고 있는 이 때에 또다른 신문이 창간한다는 것이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기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지에서는 독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수합니다.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주시고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접수처: news@eduyonhap.com